

새로 나온 詩集

채플린의 마을

이세룡 지음

출판사 편집장, 잡지사 기자를 거쳐 최근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 중인 시인의 세번째 시집. 특히 영화 내용을 주제로 하거나 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반추해가며 쓴 시를 모아 엮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간결하고 선명한 언어로 삶의 이면에 감춰진 우스꽝스러움과 추함을 유머러스하게 드러내고 있다.

고려원 / B6신 / 105면 / 2000원

사랑의 변주곡

김수영 지음 / 백락청 편

6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직전까지 시와 산문을 통해 한국시의 '체질개선'을 부르짖었던 김수영의 시선집. 지금까지 나온 김수영의 선집이나 전집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백락청의 해설「살아 있는 김수영」이 실려 있으며, 본문에서 한자를 최대한으로 줄여 새로운 맛을 자아내고 있다.

창작과 비평사 / B6신 / 213면 / 2500원

삼천리호 자전거

윤제림 지음

작년 「문예중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한 신예시인의 첫 시집. 넉넉하고 푸근한 어조로 삶의 다양한 국면을 노래하고 있다. "어지간히 다사로운 햇살 만나면 / 별 바른 양지 쪽 골라 한나절 / 따뜻한 똥을 누고 싶네, 겨우내 참아온 / 불똥을 누고 싶네"처럼 활달한 언어로 자기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젊은 시인으로서 특이하게 전통적 풍물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경 / B6신 / 118면 / 2000원

雪戀集

강우식 지음

성균관대에 출강하고 있는 중견시인의 46' 시모음. 눈(雪)을 소재로 한 108편의 시를 모았다.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수록시 편수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의 아픔과 번민, 방황이 테마가 되고 있다. 정결하고 지순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얀 눈이 이미지를 통해 나타냈다. 시의 형식을 4행으로 한 것은 우리시의 모태인 향가의 4구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청맥 / B6신 / 133면 / 2000원

사촌형님

김종천 지음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 현재 출판업을 하고 있는 시인의 첫 시집. 현대시가 동반하는 난해함이든가 서정시가 갖기 쉬운 나약함을 뛰어넘어 폭이 넓으면서 활달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때밀이, 청계천, 사촌형님 등 주변의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부분에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 이를 詩化하고 있다.

오상출판사 / B6신 / 133면 / 2000원

버버리의 노래

李雲龍 지음

향토에 머무르면서 꾸준히 시집을 상재해 온 중견시인의 시모음. 역사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화음을 이루고 있다. 토속적이고 질박한 언어로 우리시대의 고난과 비극과 역경을 노래하는 한편, 적절한 비유와 풍자 해학으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형상화했다.

思社研 / B6신 / 142면 / 1800원

사랑이 사람에게

김영재 지음

시와 그림(윤길영·동성제약 광고부장)이 한데 어울린 그림시집. 시집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테마는 사랑.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기쁨과 상처가 담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사랑은 개인의식으로서의 사랑과 집단의식으로서의 사랑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사랑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시가 미화적인 낭만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독특한 화법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청맥 / A5신 / 157면 / 3000원

사람구경

박상우 지음

80년대 후반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예시인의 첫 시집. 자유분방한 언어로 삶의 허위성과 고정관념을 희화하고 해체한다. 야유와 냉소와 자학으로 가득찬 도시적 감수성에 그 특색이 있다. 「나의 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삶에 정나미가 떨어지면」「근사한 제목을 달지 못한 詩」등 창란스러운 어조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고려원 / B6신 / 138면 / 2000원

황소의 울음소리

金聲鏞 지음

경상도 함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흠과 더불어 살아온 시인의 첫 시집.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농촌에 대한 관심을 심고 싶었다"는 시인의 말처럼 몰락해가는 농촌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연민과 분노, 극복의지가 드러나 있다. 「새해 아침」「벼랑에 선 나그네」등 4부에 모두 77편을 수록했다.

범우사 / B6신 / 156면 / 2000원

국경의 제비

李崇子 지음

현재 '美洲문인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재미동포의 시집. 미국의 문학과 일간지에 발표된 작품을 모았다. 생에 대한 사랑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맑은 심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59년 미국에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갈고 닦아온 정성이 시편마다 배어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한뎃 / A5 / 141면 / 2000원

동경까마귀

章湖 지음

이제 중견의 단계를 벗어나 원로로 진입하고 있는 장호시인(본명 金長好·동국대 교수)의 시집. 현실인식에 관한 뛰어난 시적 감각을 지적 헤아림으로 다스리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준다. 시집의 표제인 '동경까마귀'는 까마귀가 상징하는 흉조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생태를 결합시킨 것으로 현실에 대한 냉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31면 / 2000원

쥐똥나무가 수상하다

김추인 외 지음

80년대 초반 「현대시학」「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네사람의 젊은 여성시인의 시모음. 난폭한 세계와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가영심의 시, 내면의 의식을 외면의 풍경을 통해 드러내는 권운지의 시, 방법적 자기부정을 통하여 자아의 실체와 만나고자 하는 김추인의 시, 허망한 삶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비애를 노래한 안혜경의 시 등 각각 독자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청하 / B6신 / 126면 / 2000원

아가Ⅱ - 불꽃놀이

慎達子 지음

여류시인이 쓴 '사랑의 연작시'. 「아가」라는 제목의 시 77편을 모았다. 사랑으로 빚어지는 파격이나 비극성을 모두 배제하고 영원한 일치로 승화 도달하는 사랑의 초월성을 노래하고 있다. 사랑은 보이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보고 느끼게 하는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시인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다.

문학사상사 / B6신 / 115면 / 2000원

저녁이미지

이우결 지음

시와 시조 양부문에서 동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시집. 삶의 고통스러움과 인간성의 강인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목욕물, 하수구, 방, 우리 누나, 역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일상적 풍경과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핵심적 의미를 끌어내는 '정신의 곡예'를 보여준다.

동학사 / B6신 / 120면 / 2000원

五丈原의 가을

북거일 지음

전작장편 「비명을 찾아서」로 화려하게 데뷔한 바 있는 북거일씨의 신작시집. 전통적인 서정과 수법을 통해 현대의 조직사회에 의해서 망가지는 우리의 일상과, 역사에의 전망이 오늘의 우리의 정서에 어떤 의미를 드리우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고전적 목소리를 대할 수 있다.

문학과지성사 / B6신 / 117면 / 2000원

우리들 사랑

장정일·최계선 편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들어와 작품 활동을 시작한 20대 젊은 시인들의 신작시모음. 구광본, 장정일, 전동균, 조원규 등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양광 테러블의 싱싱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치적 전환기와 문화적 과도기를 통과해오면서 일종의 사생아 의식을 갖게 된 젊은 세대의 개성적 발성법과 만나게 된다.

청하 / B6신 / 183면 / 2500원